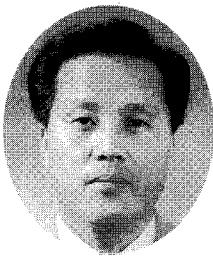




# ‘최소비용·최고수량·최고미질’로 전북 쌀농업 승부 할 터

쌀 생산성 제고위해 ‘쌀 생산성 향상 5대과제’ 중점 추진  
쌀농업 중요성 부각·공감대 형성위해 지도역량 모을 것



김복기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전북은 예로부터 기름진 땅과 농사짓기에 알맞은 기후여건, 그리고 농가의 높은 재배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수량이 높고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함으로써 미작농업의 중심지로 위치를 굳혀 왔다. 지금도 김제시 부량면에는 백제 비류왕 27년에 축조된 벽골제가 남아있어 전북 서해평야 지역이 우리나라 미작농업의 발상지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쌀은 도내 농업소득의 62.7%를 점유함으로써 농가경제는 물론 다른산업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농업에서 쌀농사가 갖는 비중과 위치는 어느지역 보다 높고 중요한 작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영농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등 여러가지 영농여건이 변화되면서 쌀농업은 눈에 띄게 편농중심으로 조방화 되어 수량과 미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봄가

물과 저온현상 등 잦아지는 기상이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위축시키고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전북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영농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현장 영농지원원을 강화하고 단위수량 증대와 생산비절감 그리고 미질향상을 통해 쌀 생산성을 높이고자 “쌀 생산성 향상 5대과제”를 설정,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지난해 식부면적의 88%까지 확대 재배된 양질 다수성 품종을 금년에는 식부면적의 9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수량성과 재해 적응성이 높은 43개 품종을 선정, 재배토록 추천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는 양질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품종특성과 재배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매년 도복피해가 많은 서해 평야지역에는 도복저항성 품종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고 냉해 및 한해 등 재해 상습지에는 일미벼 등 12품종(196톤)을 우선 공급하였다. 금년에는 신육성품종 전시포를 34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품종비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을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알맞은 벼 포기수 확보

수량구성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벼 포기수는 '91년 평당 80주에서 서서히 줄어 들기



풍년농사 새기술 실천다짐대회

시작하여 '96년에는 76.8주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9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79.3주까지 늘어나는 가시적인 지도 성과를 거둔바 있다. 금년에는 평당 80주를 목표로 봄철부터 지역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이앙기 식부침을 사전 조절토록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이앙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 중심 주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양여건 감안,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 전개

매년 도복과 병해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의 감량시용을 위해 지난해 도복 피해담을 원인별로 조사하여 사례중심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중점 홍보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공감을 얻은바 있다. 또 적량 시비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농업인 학습단체와 독농가, 시범농가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실증교육을 위한 시비량별 전시포를 26개소에 설치하여

각종 농업인 집회시 현장 실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다.

### 병해충 정밀예찰과 경제적 종합방제 추진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와 방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요 시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방제적기를 설정하고 약효기간이 긴 침투성 농약 중심의 예방위주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도단위 예찰 협의회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포장에 적중되는 예찰정보의 발표는 물론 관계기관의 방제지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된 지원방제비를 활용한 적기 지원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병해충 및 방제시기, 약제선정 등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도 연구지도사 합동으로 도단위 예찰지원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현장예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규 지도사에 대한 해충분류 실습교육도 3회에 걸쳐 현지에서 실시하여 병해충 예찰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한 잡초약 체계처리

직파재배 면적 증가와 편농의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눈에 띄게 피, 잡초 발생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답직파답의 제초제 사용시기는 기상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기상여건에 따른 제초제 선택과 적기사용 그리고 체계처리에 중점을 두어 신규 직파농가 중심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피나 잡초발생이 많은 취약농가를 카드화 하여 행정합동으로 책임지도 체제를 구

축하여깨끗한 들판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쌀 생산비 절감위한 생력기술 보급 절실

시장개방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볼 때 우리 쌀농업도 현실에만 안주할 수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쌀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현 시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쌀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닥치더라도 반드시 지켜지고 더욱 발전되어야 할 영원한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술의 보급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우리도에서는 금년도 직파재배를 2만2백여ha까지 확대하고자 희망 농가 중심으로 자율재배를 추진하였다. 또 금년 봄철 기문의 영향으로 직파면적이 대폭 증가되고 있어 목표면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답직파답의 제초는 90% 이상이 토양처리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제는 농가의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비교적 잡초방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초효과가 좋은 경엽처리제가 다수 개발 보급되어 제초상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결 되었다고 본다.

다만, 직파에서 문제가 되는 도복피해 경감을 위해 직파전용 품종을 식부면적의 50%이상 보급 하였고 직파 유형별 현장애로 과제 개선을 위한 실증포도 9개소에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육묘노력 절감을 위한 부직포 못자리는 지난해 전체 면적의 67%에서 금년에는 80% 까지 확대되었으나 장수, 진안 등 산간



김제 죽산에서 열린 답수직파재배 경시대회

부까지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4월 20일 이전 설치시에도 간이출아를 실시하지 않고 직치상 하는 농가가 많아 입모 불균일 등 문제점이 발생된바 있다. 그리하여 내년 부터는 물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고랑을 정밀설치하고 산간부 비닐피복과 1모작 부직포 못자리의 간이출아 치상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병해충 방제 및 도복예방 등 농작업 성공위해 최선 다할 것

우리도에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98년부터 도정 시책사업으로 단지당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쌀생산비 절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2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생산비 절감 실증과제를 현장에서 총력 실천하였고 대학교수들에 의한 외부평가 용역 결과 '94년 대비 불변가격으로 23.5%의 절감효과를 거둬으로써 생산비 절감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다. 또 단지농가의 기술수준 향상과 단지주변 지역에 대한 새기술 보급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에는 9개단지 4백56ha를 조성(사업비 4억여원)하여 토성, 용수로 작부형태 및 경작지 분포를 감안, 일관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소구획을 설정함으로써 기계화단지 영농효과를 극대화 하고 단계별로 주요 실증과제를 현장지도를 통해 중점 실천해 나가고 있다.

금년 직파재배는 단지면적의 77%인 3백51ha를 건답 또는 답수직파하였고 토지용역비 절감을 위한 답리작 재배도 지난해 18%에서 금년에는 34%까지 확대하고 보리후작 답수산과도 지난해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병해충 최소방제, 시비개선, 물관리, RPC산물수매 등 주요 실증과제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토록 함으로써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쌀 생산비 절감 실용기술을 정립하여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정착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지만 한해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병해충 방제와 도복예방 그리고 수확 등 앞으로 전개될 주요 농작업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금년 농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금년 한해 농사가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쌀농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전체 연구·지도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약정보**